

문화특가

김제시,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김제시는 12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전 직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김제시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숭순수범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김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한가위 큰잔치 성황리 종료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완)에서는 지난 9일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와 의무경찰어머니회(회장 박옥진)의 후원으로 이용자와 봉사자, 내빈, 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 장애인가요제, 3부 한마음대회가 진행되었고, 점심시간에는 부대행사로 윷놀이, 투호, 고리걸기, 비석치기 등 민속놀이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명절인 추석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제경찰서와 의무경찰어머니회에서 손수 설렁탕과 잡채, 전, 떡, 과일 등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여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추석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하였다.

김제경찰서와 의무경찰어머니회는 매년 설과 추석명절마다 김제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정성어린 명절음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밑반찬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보건소, 어린이대상

흡연 예방 뮤지컬 공연

부안군보건소(소장 김달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흡연예방 뮤지컬 '담배 대왕과 몸짱박사님!'을 지난 9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부안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햇빛 복화술 매직쇼 극단팀의 '흡연의 해로움'을 주제로 한 뮤지컬로 담배의 나쁜 점을 이해하고 어린이 시절부터 담배의 유혹을 경계해 어린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흡연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공연구연 내 금연실천 등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부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는 토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굴된 246건의 시책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 및 주요 사업, 국가예산 확보사업 등에 대해 보고하고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읍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논의

시, 내년도 주요시책 보고회... 신규·중장기 시책 발굴 주력

정읍시가 신규와 중장기 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시 실현과 지속적인 시장발전을 통한 미래 100년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일과 12일 김제시시장 주재로 양심복 부시장을 비롯한 각 소관 국, 단,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 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국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굴된 246건의 시책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 및 주요 사업, 국가예산 확보사업 등에 대해 보고하고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과 중

앙 공모사업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시책과 지속적으로 시장과 지역발전을 이룰 시책발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시장은 문화관광복지국, 농생명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해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캠퍼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관련 사업 적극 지원, 친철과 정성을 다하는 민원 응대 및 민원처리,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농기계 교육과 농작물관련 사업 국비 확보 추진 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과 관련, 각종 SOC사업 추진 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기를 놓치지 말 것과 연계사업은 각 부서 간 협의추진 할 것을 지시했고, 보건소와 직속과 관련해서는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 적극 추진

과 발굴된 대표음식 지속적 홍보와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시장은 "이제 민선 6기 반환점이 지났다"며 "열정과 화합으로 민선 6기 시장방침을 확고히 하고 내년도 시장목표와 비전을 확립해 정읍의 옛 명성을 되찾고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발굴된 시책사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추진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추석 귀성객 특별교통 대책 마련 적극 나서

CCTV 활용 및 교통지도

정읍시가 추석 귀성객 특별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 귀성객과 성묘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주변과 터미널, 역 등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곳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15개소)를 활용해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시로 교통지도에 나선다.

또한 14일에는 생고을시장(구)명동의류, 정읍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횡단보도와 교차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즉시 단속하고 시내 상가 주변에 주차계도요인을 배치하는 등 교통정체 해소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정읍의 관문인 정읍역과 터미널의 화장실, 대합실 환경정비와 함께 시내버스 정류장 83개소의 잡초와 불법 광고물, 거미줄 등을 제

거하는 등 도심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주력했다. 시는 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유료공영주차장 3개소와 생고을시장 내 주차장을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

김생기 시장은 "추석연휴기간 불법주·정차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연휴기간 개방되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으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단풍미인쌀 재배단지 수매 협의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9일 제2청사 제1강의실에서 수매 감사원을 위촉하고 행정과 농림, 감사원, 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단풍미인쌀 수매 협의회를 가졌다.

수매 감사원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0년 이상 산산물 감사를 맡아온 감사원 5명이 위촉됐다.

시에 따르면 단풍미인쌀 수매는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적기 수확과

산물벼 수매를 원칙으로 실시된다. 시는 "단풍미인쌀로서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등급수매를 철저하게 지켜 수매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재배단지 원료로부터 철저하게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산물벼 중실감사를 통해서도 타품 중 유입과 피해립, 착색립, 이물 등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단풍미인쌀 전용싸이로 저장시설에 등급별로 구분해 보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정, 김제시에 추석 어려운 이웃위한 후원물품 기탁

돼지갈비 300박스 기탁

(주)서정(대표 이관규)에서는 12일 김제시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돼지갈비 300박스(1박스 3kg, 9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제시 황산면에 본사를 둔 (주)서정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저소득가정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싶다"면서 복지사과

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기를 희망하였다.

2002년 설립한 (주)서정은 돈육가공 원료를 우수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황산골순대국밥, 삼창이배고과 등 50여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주)서정은 2005년 CLEAN 사업장 인정, 2012년 HACCP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한편 회사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의

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매년 명절에 물품을 후원해주어 어려운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주)서정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우리시에서도 저소득가정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그룹-홈 입소자 프로그램 운영

각종 놀이와 혈압 측정 등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에서는 그룹-홈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그룹-홈(경로당) 입소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성질환 또한 계속 증가추세이며 대진광역치매센터 조사 자료를 보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 1위는 치매, 2위는 암, 3위는 심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룹-홈 지원팀에서는 어르신들의 치매인식을 증진시키고, 두뇌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우울과 고립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두뇌활동을 촉

진하는 색칠놀이, 색종이 접기, 퍼즐 맞추기를 실시하고, 우울과 기분호전을 위한 매니큐어 바르기 둘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본인의 혈관 수치를 알고 있음으로 심뇌혈관을 사전예방하고 셋째는 어르신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낙상 및 골절 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에 대한 역할 참여 활동을 넓혀주고 나누고 섬기는 배려의 삶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함께 동행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룹-홈 이용인원증가에 기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룹-홈이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이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구절초 축제 준비 '만전'

산내면 마을주민들 제초더미 운반 등 청결활동 힘써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정읍 구절초 축제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성공 개최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 간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9일 간 '슬로우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우(slow tour)'를 컨셉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산내면 마을주민 대표들은 지난 9일 여름 내 쌓여진 제초더미를 운반하는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성공 개최라는 한 마음으로 심시일만 손을 모아 공원 청결작업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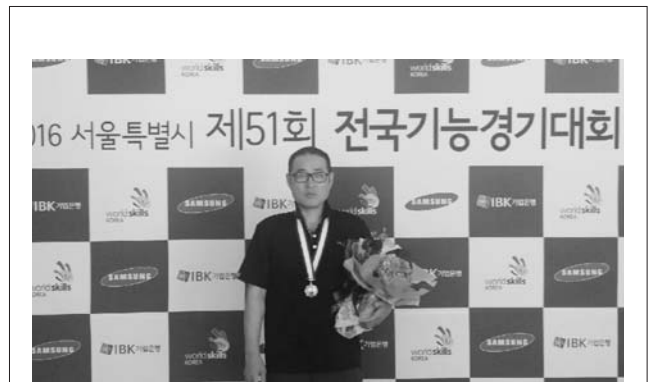
산내면 주민들은 올해 축제에서 '구절초 음식장터'와 '농특산물판매장' 코너에 참여한다. 산내면에서는 지역

의 지랑거리인 구절초축제를 통해 청정농산물과 음식 제공을, 지역민들의 손으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간다는 방침으로 지난 2014년부터 '구절초축제 음식장터 협회'를 자체 구성해 토속적이고 양질의 축제음식 제공을 위한 논의와 타협, 상호 단합과 구절초 가꾸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시는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축제의 주인이 지역주민이자 정읍 구절초축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의 무대인 구절초 테마공원 12만㎡의 슬로우 구절초 풍경을 가꾸기 위해 시는 매년 3월부터 10월 개화까지 행정과 지역주민이 단합하여 갖은 노력과 땀을 흘려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표로 출전한 부안 청자박물관에 근무하는 강의석씨가 전국기능경기대회 도자기 부문에 동메달을 획득해 상금 400만원을 수상했다.

부안 청자박물관 강의석씨 동메달

전국기능경기대회 도자기 부문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가 주관하는 2016 제51회 서울특별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북대표로 출전한 부안 청자박물관에 근무하는 강의석씨가 도자기 부문에 동메달을 획득해 상금 400만원을 수상했다.

지난 6부터 9일까지 서울특별시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의 도자기 부문은 전국 13개 시도별 1~3위 선수가 출전해 주어진 과제에 맞게 도면의 치수대로 도자기를 성형, 정형, 문양 등을 넣어 큰 함이 2점, 평경 있는 합 3점을 제출하는 시합으로 전국의 우수한 기능인들이 모여 기량을 뽐내는 자리였다.

강의석씨는 "부안 청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며 군민과 함께 부안의 도자문화를 꽃피우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석씨는 원광대학교 도예과와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원광대학교 도예과 강사를 거쳐 2010년과 2014년 전국공모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청자박물관에서 근무하며 사기장 이은규 선생의 전수장학생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